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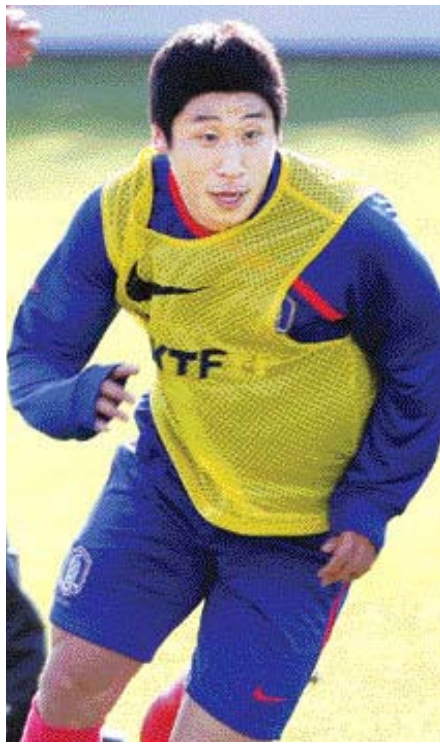
<박주영>



<안정환>



<이동국>



<이근호>

허정무호 16강 축포 내게 맡겨라!

남아공 월드컵 D-35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의 포문은 우리에게 맡겨라’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무대에서 활약할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뽑기 위한 30명의 예비 엔트리를 발표하면서 태극전사들의 본격적인 주전 경쟁이 시작됐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은 과연 몇 골이나 상대의 골 그물에 꽂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알 수 없지만 박주영(모나코)·이근호(이와타)·이동국(전북)·안정환(다롄)·이승철(서울) 등 예비 엔트리에 포함된 5명의 공격수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태극전사들 통산 7차례 본선무대에서 22골 그쳐

이번엔?... 박주영·안정환·이동국 등 골사냥

허정무 감독은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4-4-2 전술을 채택했다.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위한 장신의 공격수들도 점검해왔고, 다양한 투톱 스트라이커 조합을 맞추면서 최적의 투톱 조합을 짜는 데 애를 썼다.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허 감독은 박주영-이근호 투톱을 주로 기용해왔다. 둘 다 스피드가 뛰어나고 공간 침투에 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올림픽 대표

팀 때부터 함께 성장해 호흡이 잘 맞는다는 것도 뛰어난 장점이다.

허 감독의 고민은 지난해 특점왕 이동국과 역대 월드컵에서 아시아 선수 최다골 기록(3골)을 가진 안정환 중 누구를 ‘확실한 조커’로 낙점하느냐로 몰렸다.

이동국은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20골을 몰아치면서 이쁨값을 끌어올렸지만 대표팀에서 활약은 그리 눈에 띄지 못했다. 하지만 이동국의 장점은 상대 수비가 예측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깜짝골’을 터트리는 능력이다.

또 5명의 공격수 가운데 187cm로 가장 키가 크다는 것도 이동국의 장점이다.

안정환은 위기의 상황에서 팀에 반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해결사 본능’이 가장 큰 자산이다.

안정환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미국과 경기에서 헤딩 동점골을 터트렸고, 이탈리아와 16강전에서는 헤딩 결승골로 한국의 4강 진출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이밖에 지난 2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2골을 터트리며 ‘젊은 파’의 가능성을 보여준 21살의 이승철은 최종 엔트리에 합류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성에 119억 러브콜

“뮌헨서 영입 자금 준비”

영 ‘데일리 메일’ 보도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독일의 축구 명가 바이에른 뮌헨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입에 700만 파운드(119억여원)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은 6일(한국시간) “뮌헨이 박지성의 영입에 700만 파운드를 제시할 준비가 됐다”며 “뮌헨은 맨유가 다음 시즌 팀 재정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만큼 박지성의 이적 협상에 나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뮌헨은 박지성이 지난 2005년 PSV 에인트호벤(네덜란드)



에서 맨유로 이적할 때 발생했던 400만 파운드보다 90% 가까이 인상된 700만 파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지성은 2012년까지 맨유와 계약돼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맨유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적 협상이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연합뉴스

루니 ‘올해의 선수’ 영예

맨유 팬투표 선정...프리미어리그 MVP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간판 스트라이커 웨인 루니(25)가 맨유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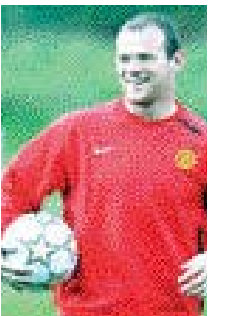
맨유는 6일(한국시간)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루니가 팬들의 투표로 정해지는데 8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파트리스 에브라와 안토니오 발렌시아가 2·3위로 루니의 뒤를 이었다.

루니가 이 상을 받는 것은 지난 2006

년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루니는 지난 1월31일 아스널과 경기에서 넣었던 골이 올 시즌 최고의 골로 선정되는 경이사를 누렸다.

올 시즌 정규리그 26골로 디디에 드로그바(첼시)와 득점 부문 공동 1위에 올라 있는 루니는 앞서 영국축구기자협회(FWA)와 영국축구선수협회(PFA)로부터 각각 올해의 프리미어리그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한국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및 성적

연도	진출 순위	경기 결과
1954년 스위스(16위)	6월	헝가리 0-9 패, 터키 0-7 패
1990년 이탈리아(22위)	6월	벨기에 0-2 패, 스페인 1-3 패, 황보관(전 43) vs 우루과이 0-1 패
1994년 미국(20위)	6월	스페인 2-2 무, 홍명보(후 40) vs 서정원(후 45) 패, 볼리비아 0-0 무, 독일 2-3 패, 황선홍(후 7) vs 홍명보(후 18) 패
2002년 한·일 월드컵(4위)	6월 4일	폴란드 2-0 승, 황선홍(전 26) vs 유상철(후 9) 승, 10일 미국 1-1 무, 안정환(후 33) vs 14일 포르투갈 1-0 승, 박지성(후 25) vs (16강) 18일 이탈리아 2-1 승, 설기현(후 42) vs 안정환(연장 후반 11) 승, (8강) 22일 스페인 5-4 승, 승부차기 (4강) 25일 독일 0-1 패, (4강) 29일 터키 2-3 패, 이을용(전 9) vs 송중국(후 48) 승
2006년 독일(16강 진출 실패)	6월	토고 2-1 승, 이천수(후 9) vs 안정환(후 27) 패, 프랑스 1-1 무, 박지성(후 36) vs 스위스 0-2 패
1986년 멕시코(20위)	6월	아르헨티나 1-3 패, 박상천(후 27) vs 볼리비아 1-1 무, 김중부(후 24) vs 이탈리아 2-3 패, 최순호(후 17) vs 허정무(후 43) 패
1998년 프랑스(30위)	6월	멕시코 1-3 패, 허석주(전 27) vs 벨기에 1-1 무, 유상철(후 26) 패

한국역대 총 8회(7회 연속) 진출

허정무호 10일 소집... 차두리·기성룡 합류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10일 낮 12시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에 모여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탐금질을 시작한다.

대표팀은 애초 소집 규정상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막 할 날 전인 12일부터 모일 수 있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협조를 얻어 이를 빠른 10일 국내 K-리그를 주축으로 선수들을 불러 모은다.

소집 당일인 10일에는 월드컵 예비 엔트

리 30명 중 해외파 12명 대부분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에 출전하는 국내파를 제외한 10여명이 모인다.

K-리그는 울산 소속의 골키퍼 김영광, 수비수 오병석, 김동진과 FC서울의 미드필더 김치우, 공격수 이승철, 광주 상무의 미드필더 김정우, 제주의 수비수 조용형, 미드필더 구자철 등 8명뿐이다.

이들은 8일과 9일 치러지는 K-리그 12라운드 경기에 출전하고 10일 파주 NFC에 입소한다.

해외파 중에선 스코틀랜드에서 뛰는 기성용(셀틱)과 독일 분데스리가의 차두리(프라이부르크)가 이르면 10일 대표팀에 가세한다. 기성용의 소속팀 셀틱은 9일 밤 하트 오브 미들로시어인과 최종전이 잡혀 있고 차두리가 뛰는 프라이부르크는 8일 밤 도르트문트와 최종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기성용이 최종전 이전에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구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9일 자정 나란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에 나서는 박지성(맨체스터 유

나이티드)과 이청용(볼턴)은 11일 또는 12일 귀국한다. 또 11일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홈경기가 예정된 수원외의 골키퍼 이운재, 수비수 강민수, 미드필더 조원희, 공격수 엄기훈과 삼남의 골키퍼 정성룡은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오전 파주 NFC에 입소한다.

반면 12일 AFC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벌이는 포항의 미드필더 김재성, 신형민, 수비수 김형일, 황재원과 전북의 공격수 이동국은 귀국 직후인 13일 또는 14일 대표팀에 가세한다.

박지성·이청용

11~12일 귀국

용병 슈바 ‘1골 1도움’... 전남 2연승

K-리그 11라운드 전북과 호남더비 3대2 승

전남 드래곤즈가 2연승을 달리며 순위싸움에 시동을 걸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5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K-리그 11라운드 ‘호남더비’에서 세 골을 몰아 넣으며 3-2로 승리를 거뒀다.

지난 수원과의 10라운드 경기에서 안방에서 첫 승을 신고하며 4연패를 끊었던 전남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며 9위로 도약했다.

시작과 함께 전남의 골이 터져나왔다. 중앙으로 침투하던 지동원이 슈바의 패스를 받아 일방 슈팅을 날리며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다.

전남 5분 선제골을 도운 슈바가 득점까지 추가했다. 슈바가 인디오가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받아 헤딩골로 전북의 골망을 가르며 2-0을 만들었다. 기세 오른 전남은 후반 14분 정인환의 헤딩골까지 추가하면서 경기를 주도했다. 전북의 예닝요가 전반 42분과 후반 25분 두 골을 넣으며 전남을 추격했지만 경기는 3-2 전남의 승리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U-17 여자 월드컵축구

한국, 멕시코와 B조

2010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에 나서는 여자 대표팀이 멕시코를 비롯한 유럽 및 아프리카팀과 B조에 편성됐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전날 저녁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트모르스페인에서 치러진 U-17 여자 월드컵 본선 대진 추첨 결과 대표팀

은 멕시코·유럽에선 3위팀·아프리카에선 3위팀과 함께 B조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유럽과 아프리카는 아직 예선이 끝나지 않아 상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는 튀니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운데 3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16개국이 겨루는 U-17 여자월드컵은 오는 9월 5일부터 25일까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열린다. 한국은 9월 5일 아프리카에선 3위 팀과 B조 1차전을 치른다.

관광산별: WELCOME TO HEDONG

송도시립 송도

엘도라도리조트

시원스 매일관광: 5월 31일부터 (최신형 관광버스)

10,000원/구좌 / 10,000원/구좌

104,000원/구좌 / 153,000원/구좌